

ARTIVIST, 아고스티노 이아쿠르치의 개인전 ‘메이킹 룸(Making Room)’ 2월 29일까지 연장

글로벌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아티비스트(ARTIVIST)’는 이탈리아 출신 예술가 아고스티노 이아쿠르치(Agostino Iacurci, b.1986)의 개인전 ‘메이킹 룸(Making Room)’의 전시를 오는 2월 29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메이킹 룸(Making Room)’은 이아쿠르치가 이탈리아 볼로냐와 서울에 머물며 작업했던 결과물로, 작가가 전 세계를 다니며 다양한 문화에서 얻은 영감과 한국 전통의 건축 요소, 식물 모티프를 섬세하게 결합하여 만들어낸 작품들로 구성된다. 특히 한국의 전통 색채 기법인 단청의 선명한 색상과 기하학적 패턴에 깊은 인상을 받은 그는 한국 전통을 존중하는 마음과 현대 미술의 시각으로 재해석한 자신만의 독특한 작품을 탄생시켰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아티비스트의 큐레이터 아프로뎃 주리(Afrodet Zuri)는 화려한 색감의 미술 작품과 전시 공간의 콘크리트 건축 디자인은 관람객들의 상호 작용 몰입을 위해 신중히 연출되었다고 밝혔다. 갤러리 벽과 공간 또한 모두 그의 예술 작품 요소로서 기존의 고정관념을 탈피한다. 전시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벽은 기하학적 형태와 공명하여 건축 공간이 자연스럽게 캔버스로 연결되는 유동적 시각의 서사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은 예술과 공간 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관람객에게 독특하고 매력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이번 전시회 제목인 ‘메이킹 룸 (Making Room)’ 또한 이아쿠르치가 예술을 혁신적으로 접근하려고 한 시도가 담겨 있다. 그에게 공간이란 단순히 물리적인 경계가 아니며, 2차원 작품이 3차원 경험으로 전환되는 과정의 탐구와 은유적 탐구의 결합을 뜻한다. 그는 이번에 발표한 작품들이 지역의 유산과 국제 이야기가 역동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문화적, 사회적 표현으로서의 캔버스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아프로뎃 주리(Afrodet Zuri)는 “이아쿠르치의 전시는 예술가들을 새로운 문화적 맥락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어떤 창의성을 촉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예시.”라며,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영향을 탐구하고 흡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현대 미술의 발전에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아티비스트의 후원을 받아 제작한 이번 작품들은, 역사적, 문화적, 예술적 맥락이 담긴 풍부한 서사를 느낄 수 있는 동시에 두꺼운 선, 선명한 색채, 기하학적 패턴으로 보이는 이아쿠르치만의 엉뚱하고 의미 있는 스타일이 그대로 드러난다. 나아가 자신이 감명받은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관련성 있게 엮어낸 그의 끈질긴 노력은 관람객들이 익숙한 환경을 낫설고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영감을 준다.

아티비스트 창립자인 김영은 대표는 “우리는 서울 기반의 글로벌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통해 전세계 유망 예술가들을 한국에 소개하고 국내 컬렉터들과의 접점을 넓히는데 더욱 전념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번 아고스티노 이아쿠르치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글로벌 아티스트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나아가 작품으로 승화됨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메이킹 룸 (Making Room)’ 전시는 2024년 2월 29일까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20-3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네이버를 통한 관람 사전 예약 시 1:1의 도슨트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아티비스트 소개

아티비스트(ARTIVIST)는 문화 예술 단체로서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그램, 아트 컬렉터 및 후원자 클럽, 전시를 진행한다. 예술적 영감과 자유로운 협업을 위해 인큐베이터 역할도 하는 ARTIVIST는 예술가들이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고 작품을 더 많은 관람객과 공유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을 제공한다. 아티비스트의 미션은 예술가들의 재능을 육성하고 후원을 장려함으로써 예술 문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이다.

Media Contact: contact@artistglobal.com